

제 1 교시

언어 영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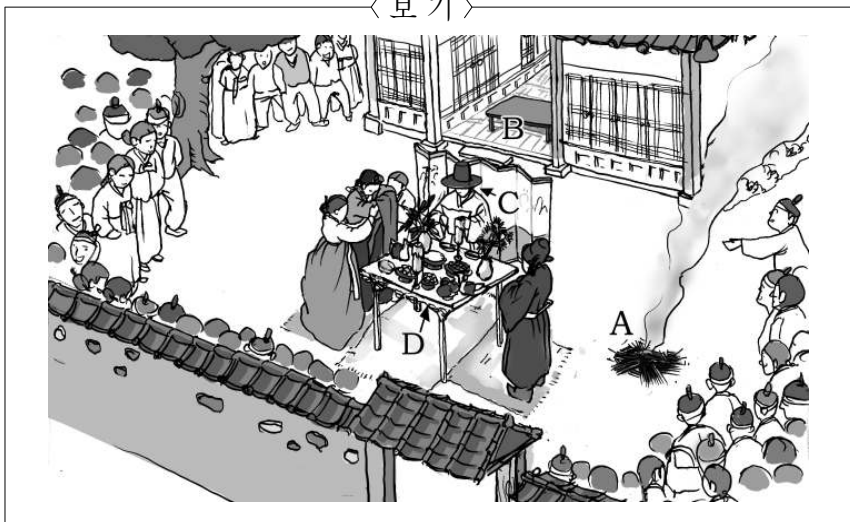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자.
- ②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자.
- ③ 실패를 통해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자.
- ④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자.
- ⑤ 어떤 일이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자.

2. (물음) 대화를 들은 학생이 <보기>의 혼례식 장면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신랑은 B 앞에서 두 번 절한다.
- ② 기러기는 B에서 D로 옮겨진다.
- ③ C는 혼례식에서 덕담을 하는 역할을 한다.
- ④ 혼례식 때 신랑이 서 있는 위치는 D의 동쪽이다.
- ⑤ 혼례가 시작되기 전 신랑은 A를 거쳐 B로 이동한다.

3. (물음) ‘자이가르닉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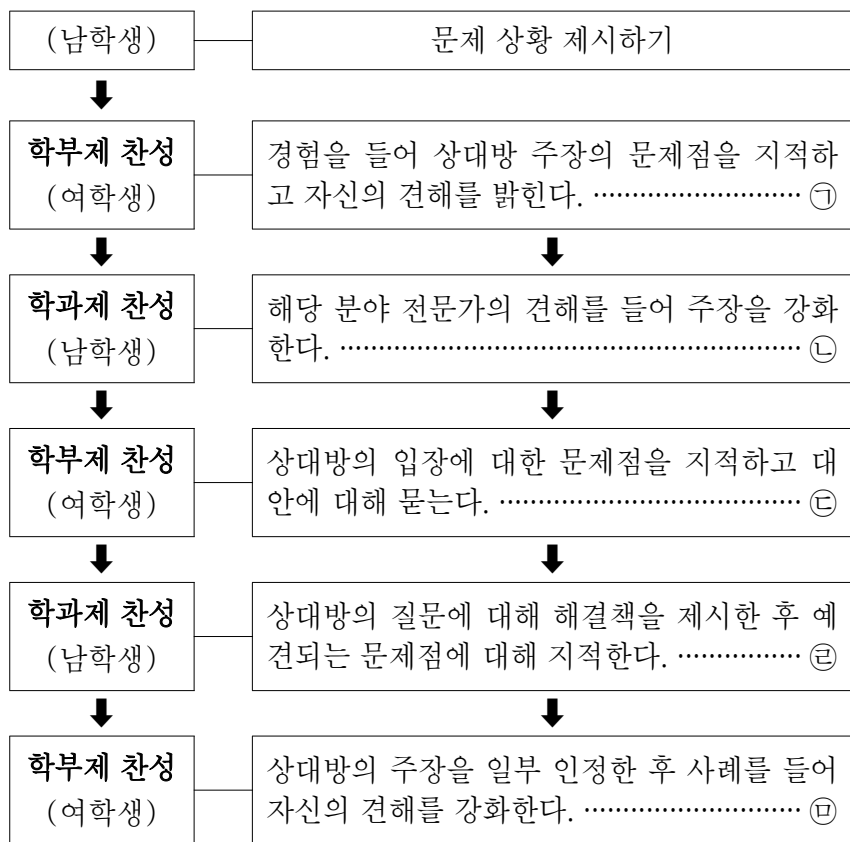
- ① 추상적인 내용도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잘 기억된다.
- ② 복잡한 내용도 학습 단계를 구조화시키면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 ③ 완결되지 않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 ④ 학습량이 많아도 자신의 수준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성취할 수 있다.
- ⑤ 흥미 없는 책도 시각을 달리 해서 읽으면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된다.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입장에 따른 말하기 방식을 발언 순서에 따라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언 순서]

[말하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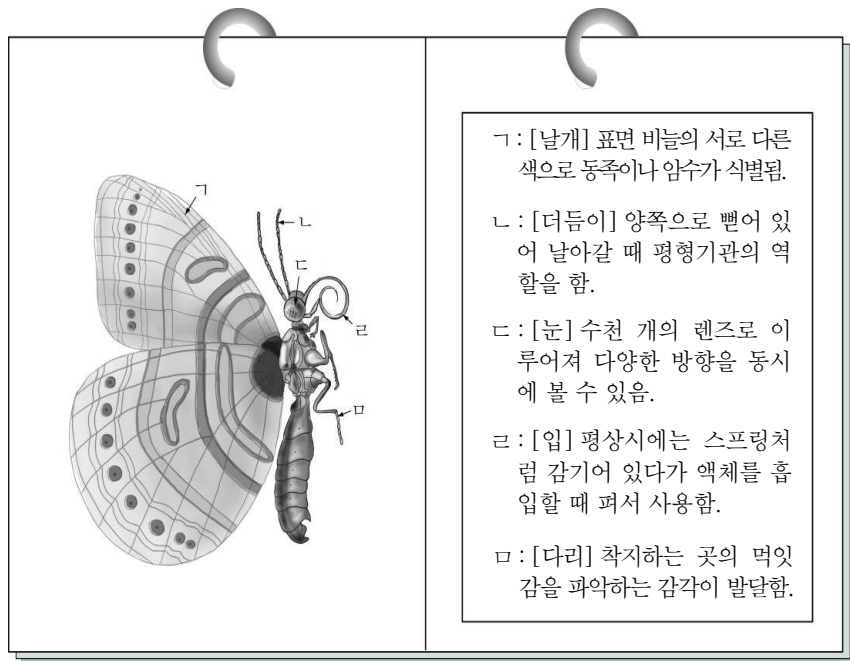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물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생교육을 통해 자아를 완성해야 한다.
- ② 폭넓은 교양을 쌓아서 인성을 함양해야 한다.
- ③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
- ④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 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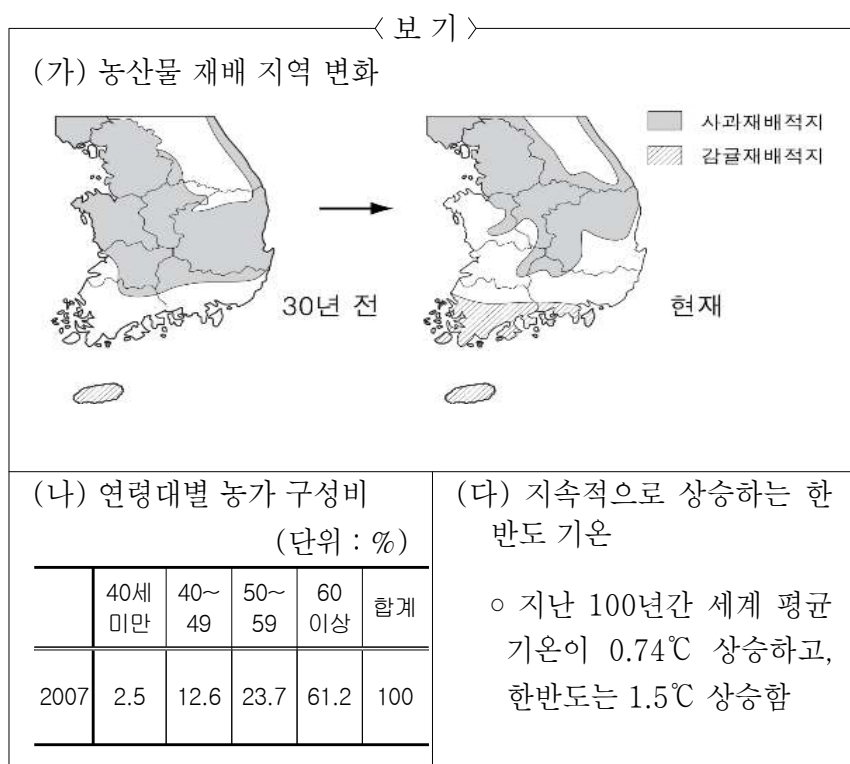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다음은 나비의 관찰기록 일지이다. 나비의 생태에서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의 자세’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착안점	의미 추출	연상한 내용
①	ㄱ	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②	ㄴ	균형감	사물을 판단할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바라보아야 한다.
③	ㄷ	통찰력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ㄹ	적용력	주어진 상황에 따라 탐구의 방식을 달리한다.
⑤	ㅁ	분별력	자신에게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7. <보기>는 ‘농업 정책의 방향’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농산물의 품종별로 재배 지역이 변화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다.
 ② (가)+(나) :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별 생산 품종의 변화를 근거로 농업 정책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③ (가)+(다) : 사과와 감귤의 재배지역이 변화된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음을 밝힌다.
 ④ (나)+(다) : 기후 변화가 세계 평균보다 큰 것을 근거로 하여 농업 생산 품목의 수급 불균형에 대해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
 ⑤ (가)+(나)+(다) : 기후 조건에 따른 품종 변화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재배 기술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8. <보기>는 ‘가족 여가 문화’에 대한 인터뷰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개요>를 수정 보완하려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10대 청소년 : 부모님이랑 놀러 가면 재미없었는데, 이번 연휴에 참여했던 ‘역할 바꾸기 가족캠프’는 대화를 통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어요.
 - 30대 직장인 :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인지 놀이공원이나 노래방 말고는 함께 즐길 곳도 별로 없고, 비용도 부담되죠. 공공시설을 활용한 여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 40대 가장 : 가족 여가 문화요? 가족과 놀러 다니는 것과는 다른 거죠? 주5일제 근무로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가치 있게 보내지는 못하고 있죠.

- < 개 요 >
- I. 서론
- 가족 여가 문화의 개념
- II. 본론
- 문제점
 - 가. 위락 문화에 편중된 여가 활용
 - 나. 가족 간 대화 부족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
 - 제약 원인
 - 가.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간 부족
 - 나. 세대 공유 콘텐츠 및 정보 미비
 - 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저비용 여가 프로그램
 - 개선 방안
 - 가. 가족 단위 문화 공간 확보
 - 나.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 다. 가족 여가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기회 확대
- III. 결론 : 가족 여가 문화를 위한 의식 개선

- ① ‘I’에 ‘여가 시간 확대에 따른 가족 여가 문화의 필요성’을 보충한다.
 ② ‘II-1’에 ‘여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추가한다.
 ③ ‘II-2’의 하위 항목에 ‘바람직한 가족 여가 문화 체험 부족’을 추가한다.
 ④ ‘II-2-다’를 ‘공공시설을 활용한 여가의 문제점’으로 수정하여 ‘II-1’로 이동한다.
 ⑤ ‘III’을 ‘내실 있는 가족 여가 문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구체화한다.

9. ‘소나무 문화관’의 각 전시관을 알리는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표현한 것은?

〈 보 기 〉

- 각 전시관의 성격과 연계하여 제시할 것.
- 방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드러낼 것.
- 비유와 대구를 사용할 것.

- ① [소나무 생태관]
바위 틈새에 자라는 소나무, 절벽에 뿌리 내리는 소나무
이곳에서 소나무의 강인한 특성을 알아보세요.
- ② [소나무 정신관]
소나무와 당신의 만남, 옛 성현과 후학의 만남
사철 변치 않는 푸르름은 당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 ③ [소나무 예술관]
소나무의 나이테 속에 민족의 인고의 역사와
험난한 세월의 흔적이 담겨있습니다.
- ④ [소나무 생활관]
땀감에서 궁궐 기둥까지, 곳곳에 스며있는 소나무의 숨결
소나무와 함께한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 ⑤ [소나무 숲 체험관]
당신에게 스친 솔향기는 지친 마음의 약수
신비한 숲의 힘으로 당신의 마음은 피어납니다.

10.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현대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잘못된 ㉠ 생활 습관이 원인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 흡연과 음주는 체내에 독소와 노폐물을 축적시킴으로써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걷기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타는 대신 걸어 다니는 것으로,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 오르내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심장병이나, 비만, 당뇨와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 또한 공해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도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노력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① ㉠은 문맥에 맞게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로 고쳐 쓴다.
- ② ㉡은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실천될 수’로 고쳐 쓴다.
- ③ ㉢에는 필요한 문장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계단을’ 넣어준다.
- ④ ㉣은 앞뒤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면’으로 바꾼다.
- ⑤ ㉤은 글 전체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11. <보기>는 학습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질문 : ‘못하-’와 ‘못 하-’의 구별법 좀 알려 주세요.
작성자 : 가나다 선생님

‘못하-’와 ‘못 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못하-’

- ‘아무리 적게 잡아도’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인 경우
-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인 경우
- ‘-지 못하다’와 같이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
-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못 하-’

- 부사 ‘못’ 뒤에 동사 ‘하다’가 이어지는 경우

- ① 고향의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
- ② 그는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 했다.
- ③ 철수는 어제 병이 나서 일을 못 했다.
- ④ 희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도자기이다.
- ⑤ 잡은 고기가 못해도 열 마리는 되겠다.

12. <보기>의 단어에 대한 탐구 활동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번지다 / 퍼지다

ㄱ. 전염병이 사방으로 [번지다, 퍼지다].
ㄴ. 일이 크게 [번지기, 퍼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라.
ㄷ. 국수가 [번져, 퍼져] 맛이 없다.

교환 / 교체

ㄹ. 철수는 고장 난 휴대전화를 [교환하다, 교체하다].
ㅁ. 감독은 그 선수를 후보 선수와 [교환했다, 교체했다].
ㅂ. 영화는 철수와 의견을 [교환하다, 교체하다].

- ① ㄱ~ㄷ을 보니, ‘번지다’와 ‘퍼지다’는 모두 ‘시각적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다’를 뜻하네.
- ② ㄴ의 ‘번지다’는 다른 영역으로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네.
- ③ ㄷ의 ‘퍼지다’는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뜻하네.
- ④ ㄹ, ㅁ의 ‘교체하다’는 ‘바꾸다’는 의미로 사람과 사물에 모두 쓰이네.
- ⑤ ㅁ의 ‘교체하다’와 ㅂ의 ‘교환하다’는 상호성이 전제되어 있네.

[13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어떤 공간에 조각이 놓이면 그것이 차지하는 용적만을 작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이다. 하나의 조각이 특정한 공간에 놓이면 그 주위 공간 모두가 조각의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공간 전체에 새로운 성격과 특질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각가들은 구멍도 그저 ‘빈 곳’이 아니라 ‘네거티브 볼륨’(negative volume)이라고 불러 작품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킨다. 물질과 공간이 서로 대응하여 공간 전체에 새로운 성질과 새로운 기운을 창조해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각가는 근본적으로 공간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다. 공간 창조 행위로서의 조각의 특질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토르소, 즉 팔다리 따위가 절단된 인체 형상이다.

고대의 조각을 보면 사람 형상은 대부분 전신상,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 미술가들이 파손된 채 발굴된 고대 조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이다. ㉠ ‘벨베데레의 토르소’는 이때



발굴된 유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 조각은 근대 조각가들이 파손된 고대의 작품에서 얼마나 신선한 아름다움을 느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많이 파손된 상태이지만, 강한 힘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미완성의 미학이 느껴져 ㉡ 서양의 조각가들은 조각에서 의도적으로 머리카락, 다리를 제거한 토르소를 조각의 한 장르로 인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벨베데레의 토르소> 토르소는 단순히 몸통 자체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조각이 아니다. 다양한 표정의 절단을 통해 인체의 볼륨과 선이 주위 공간과 어떤 조화 혹은 긴장을 자아내는지, 그로 인해 공간이 어떤 성격을 띠고 어떤 미학적 특질이 형성되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즉 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고도로 강조된 조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월의 풍화로 신체 일부가 떨어져나간 일부 토르소 작품들의 경우 사지가 제대로 붙어 있었다면 오히려 인상적인 느낌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조각이 하나의 심지라면 공간은 불과 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한다. 특히 근대 조각가들은 고대 조각가들에 비해 공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빈 공간 자체를 조형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때로는 빈 공간을 조각보다 우선적인 조형 요소로 취급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렇듯 조각의 역사는 단순히 덩어리를 만드는 데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진보’해 왔고, 그에 따라 조각가 역시 형상의 창조자에서 공간의 창조자로 ‘진화’해 왔다.

13. ㉠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집트 ‘피라미드’의 예술적 가치와 유사해. 안정적인 구조에서 느껴지는 균형미와 같아.
- ② ‘모나리자의 미소’의 신비함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소통되는 예술의 가치이지.
- ③ 고구려의 복원된 ‘고분 벽화’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문화재를 원형으로 복구할 때 예술적 가치는 더욱 커지겠어.
- ④ 신라의 ‘첨성대’는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이면서 그 자체로 조형미가 있잖아. 실용과 예술이 조화된 가치를 느낄 수 있어.
- ⑤ ‘신라인면와당’이라 불리는 깨진 기와도 완전한 형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아름다움이 생겼잖아. 이런 아름다움이겠지.

14.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새로운 예술적 미가 형성되므로
- ② 완전한 형상의 조각품일 때 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강화되므로
- ③ 공간 창조자로 진화해 온 조각가의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 ④ 훼손되었지만 예술품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을 보여주므로
- ⑤ 잘 보존된 작품보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작품이 가치 있으므로

15. 네거티브 볼륨에 근거하여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보편적으로 화면에서 먹[墨]은 의미가 존재하는 실(實)이요, 여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虛)이다.

- ① 소재의 특징에 따라 실(實)이 강화된다.
- ② 사실성이 부각될수록 실(實)은 강화된다.
- ③ 여백의 의미가 강화되면 허(虛)가 실(實)이 된다.
- ④ 표현의 치밀함에 의해 실(實)이 허(虛)로 전환된다.
- ⑤ 상징적인 의미가 큰 작품일수록 허(虛)가 강화된다.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출발은 솔직한 자아의 개방과 긍정적 수용 경험이다. 조셉 러프트와 해리 잉엄은 ‘조하리의 창(窓)’(Johari's Window)이라는 모형으로 개인의 잠재된 심리영역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조하리의 창’의 첫 번째 영역은 나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알고 있는 ‘공통영역’으로 표현된다. 만약 동네에서 서로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있다면, 그의 가족사항, 나이, 옷 입는 취향 등에 대해 서로 알고 있는 공통영역의 부분이 넓어 친밀한 관계가 쉽게 형성될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자신은 모르고 있는데 남은 잘 알고 있는 ‘맹점영역’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타인을 대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정작 그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언어 습관이나 행동의 습관들을 ㉠ 맹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영역은 나 자신은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적영역’이다. 이것은 비밀이나 ㉡ 치부가 드러나 행동의 제약이나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노출을 꺼리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신의 비밀을 솔직하게 노출시킨 후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지면 그와의 신뢰감이나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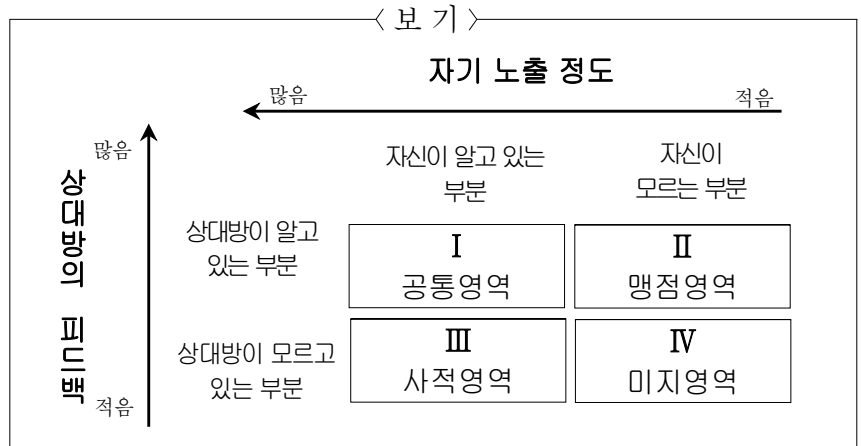
네 번째 영역은 남도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미지영역’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으나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한다. 이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있는 무의식 영역이다. 이 영역은 긍정적 자극에 의해 긍정적으로 ㉢ 촉발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환경의 사람이 남에게 봉사하며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불행을 느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돕는 사회적 관계의 힘이 미지영역을 긍정적 힘으로 전환시킨 예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을 내 보이지도 않는 ㉣ 아성을 쌓으면 자신의 결점이나 무능을 감추는 데 급급하게 되어 삶의 귀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자아의 모습’을 타인에게 노출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수용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공통영역은 넓어지고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맺을 확률도 높아진다. 타인과 신뢰가 형성되면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좀 더 긍정적으로 ㉤ 수용된다. 이는 인간의 성장을 의미하며 동시에 움츠렸던 자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이다.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이해되는 경험,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다.

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언어나 행동의 습관은 선천적인 특성이므로 불변한다.
- ②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자신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한다.
- ③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만족스러워야 타인을 돕게 된다.
- ④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자아 성장 단계의 특성이다.
- ⑤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경험은 자아 성장의 계기가 된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 이 넓어지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므로 갈등 수준이 낮아지겠어.
- ② I 에 비해 II 가 넓으면, 자신이 잘 알지 못했던 언어나 행동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겠어.
- ③ III 이 넓어지면,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 타인과의 친밀도가 약화될 거야.
- ④ IV 가 넓어지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결점을 감추는 데 급급해 고립감이 깊어질 거야.
- ⑤ III 에 비해 I 이 넓어지면, 숨기려 했던 비밀들도 좀 더 쉽게 드러낼 수 있게 되겠어.

18.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불운을 극복한 인간 승리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 시각장애인이 된 ○○씨는 ○○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는 ‘사고를 당한 뒤 절망해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자 이전엔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 ① 주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친밀감이 높아지겠어.
- ②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할 때, 성취감도 높아지겠네.
- ③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겠네.
- ④ 자신의 비밀을 솔직하게 말할 때, 타인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겠어.
- 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개인의 잠재된 능력이 발휘되겠어.

19.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모순되는 점
- ② ㉡ :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
- ③ ㉢ : 일을 당하여 충동·감정 따위가 유발됨
- ④ ㉣ :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특징
- ⑤ ㉤ : 상대방의 생각이나 뜻을 받아들임

[20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투박한 대지에 발을 붙였어도
흰 구름 이는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산

언제나 승고할 수 있는 푸른 산이
그 푸른 산이 오늘은 무척 부러워

하늘과 땅이 비뚤하던 날 그 아득한 날 밤부터
저 산맥 위로는 푸른 별이 넘나들었고

골짜기에는 양떼처럼 흰 구름이 몰려오고 가고
때로는 늙은 산 수려한 이마를 쓰다듬거니

고산 식물을 품에 안고 길러 낸다는 너그러운 산
청초한 꽃 그늘에 자고 또 이는 구름과 구름

내 몸이 가벼이 흰 구름이 되는 날은 _____ [A]
강 너머 저 푸른 산 이마를 어루만지리 _____

— 신석정,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

(나) 자일을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生涯)의 중량(重量),
확고(確固)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岩壁)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無明)의 벌레처럼 무명(無明)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 앞벽(岩壁)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接近)한다.
행복(幸福)이라든가 불행(不幸)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발 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 오세영, 「등산(登山)」—

(다) 이런들 엇더히며 더런들 엇더히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히료
히믈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터 므슴히료
<언지(言志)1>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벅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뇌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언지(言志) 2>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히니 자연이 듯기 조해 _____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히니 자연이 보디 조해 [B]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히애. _____
<언지(言志) 4>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히되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애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 흘고.
<언학(言學)1>

㉡ 청산(靑山)은 엇제히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제히여 주야(晝夜)에 굿지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히리라.
<언학(言學)5>

우부(愚夫)도 알며 히거니 괴 아니 쉬온가
성인(聖人)도 못 다 히시니 괴 아니 어려온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언학(言學)6>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천석고황(泉石膏肓) : 산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도에 지나쳐 불치의 고질병과 같음.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피미일인(彼美一人) : 여기서는 임금을 뜻함.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20.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 ②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 ④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
- 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심정이 제시되고 있다.

21. (가)와 (나)의 공통된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으로 변화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대상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화자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자신의 삶에 대해 회상하는 공간이다.
- ② ㉠은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고, ㉡은 고뇌하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현재 심정을, ㉡은 화자의 과거 상태를 보여준다.
- ⑤ ㉠은 신중한 삶의 태도를, ㉡은 일관된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공간이다.

23. [A] ‘구름’과 [B]의 ‘백운’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구름’은 이상향을, [B]의 ‘백운’은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
- ② [A]의 ‘구름’은 삶의 이치를, [B]의 ‘백운’은 삶의 변화를 드러낸다.
- ③ [A]의 ‘구름’은 공간의 이동을, [B]의 ‘백운’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 ④ [A]의 ‘구름’에는 아쉬움이, [B]의 ‘백운’에는 안타까움이 투영되어 있다.
- ⑤ [A]의 ‘구름’은 동경하는 대상이고, [B]의 ‘백운’은 그리움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24.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생애의 중량’과 ‘믿음’을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불안정한 심정을 암시하고 있어.
- ② ‘더듬는다’ → ‘조금씩 움직인다’ → ‘가까이 접근한다’로 시어를 변화시켜 삶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 ③ 2연에서 ‘무명(無名)’이 아닌 ‘무명(無明)’으로 표현한 것은 별레의 행위를 ‘빛을 찾는’ 행위에 집중시키려는 거야.
- ④ 3연의 ‘별’, ‘꽃’, ‘이슬’을 통해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3연과 4연에서 ‘다만’, ‘가까이’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어.

25.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동방의 주자’라는 칭송을 받는 이황은 27세에 초시에 합격한 후 높은 벼슬에 이르나, 관직을 사퇴하고 출사(出仕)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회에 이른다. 을사사화 때도 화를 입어 파직된 후 복직되었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기에 고향에 내려가 학문에 몰두하였다. 그는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행일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기 수양의 결과 50세 이후엔 더욱 깊은 학문의 경지를 이룰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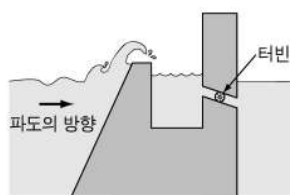
- ① ‘천석고황’은 자연을 벗 삼아 고향에서 학문을 하고 싶은 심정의 표현으로 보여.
- ②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는 것은 어지러운 정세를 한탄하며 좌절한 선비의 고뇌를 보여주는 거야.
- ③ ‘만권생애’의 ‘낙사’는 관직을 사퇴하고 출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라 할 수 있겠어.
- ④ ‘만고’에 푸르며 ‘주야’에 그치지 않는 것은 평생에 걸쳐 학문을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야.
- ⑤ ‘우부’도 할 수 있지만 ‘성인’도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학문의 특성과 면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야.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차세대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파력발전은, 파도의 움직임에 의한 파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해양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적용 및 장치 개발은 아직 미흡하다.

우선 파력발전의 방식에 대해 ㉠ 고찰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파랑에너지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기계장치를 ㉡ 구동시키는 ‘가동물체형’이 있다. 이것은 수면의 움직임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여러 형태의 기구를 사용하여 파랑에너지를 기계장치의 운동에너지로 ㉢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파랑에너지를 직접 흡수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지만, 폭풍우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면에서 불안정하다.

㉣ ‘진동수주형’은 먼 바다로부터 진행되어 온 파도가 장치 전면 에 부딪쳐 수면이 상하로 움직이면, 공기실 안의 공기가 압축 또는 팽창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즉, 공기실 상부 노즐부로 공기가 빠져나가거나 흡입되면서 터빈에 연결된 발전장치에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에너지 변환의 관점에서 보자면, 파랑에너지를 기체의 운동에너지로 1차 변환하고 이를 다시 기계장치의 운동에너지로 2차 변환하는 방식인 것이다. ‘진동수주형’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조수간만의 차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일정 한계 이상의 파고에서는 제약이 있다. 한편, 전력 발전 단가가 높은 섬 지역에 소규모 전력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월파형 파력발전>

㉤ 월파형 파력발전은 진행 방향 앞면에 경사면을 두는데, 파도가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 1차 변환된다. 이후 솟아올랐던 파도가 아래의 저수시설로 떨어지게 되면서 하부에 설치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파랑에너지를 물의 위치에너지를, 물의 위치에너지를 기계장치의 운동에너지로, 두 차례 변환되는 것이다. 월파형 파력발전은 ㉠ 저수시설을 방파제 등 연안 지역 구조물과 연동하여 설계할 수 있어 기계의 부식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위 차의 정도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달라지므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파력발전의 방식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안의 파력발전 조건에 대해 ㉡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파력발전은 높이 1m 이상의 파도가 치는 곳에서 가능하므로 1~3m 정도의 빈도수가 나타나는 지역을 파력발전의 대상지로 설정할 수 있다. 파도의 주기도 파력 발전에 중요한데, 우리 해안의 경우 4~6초 주기로 파도가 치므로 이를 파력발전 구조물 설치 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 연안의 파고는 북해나 오세아니아에 비해 불리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파력 발전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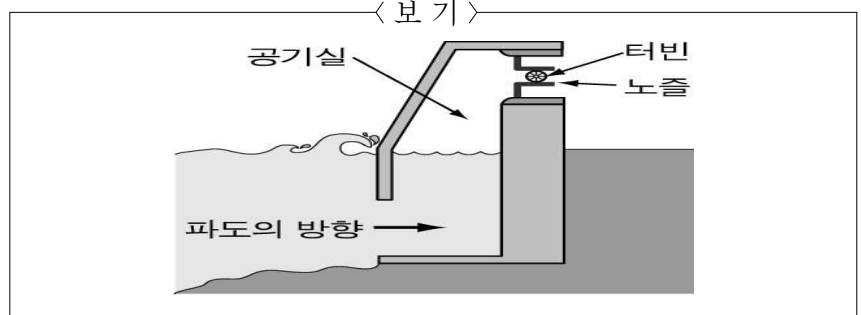
26. 위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의문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가동물체형’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ㄴ. 우리나라 해안 조건에 적합한 파력발전 구조물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ㄷ.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월파형’ 파력발전이 불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ㄹ. ‘진동수주형’ 방식을 이용하면 섬 지역의 전력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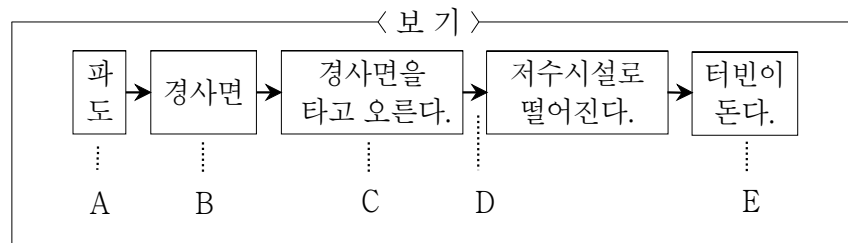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보기>는 ㉣의 구조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도 주기가 짧아질수록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은 증가된다.
 ② 공기실로 유입되는 물의 양에 따라 기체의 압력은 변화한다.
 ③ 파고가 높을수록 공기실에 유입되는 물은 증가하여 공기는 팽창된다.
 ④ 공기실의 공기 압력이 높아지면 터빈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량은 증가한다.
 ⑤ 파도의 이동으로 수면의 높낮이가 바뀌면 노즐을 통과하는 공기 흐름의 방향도 바뀐다.

28. <보기>는 ㉤의 발전 과정이다. 에너지 변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A : 파도가 이동하며 발생하는 파랑에너지의 상태
 ② B : 파랑에너지를 위치에너지를 변환시키기 위한 구조물
 ③ C : 물의 위치에너지를 기계의 운동에너지로 1차 변환되는 상태
 ④ D : 떨어지기 전까지 물의 위치에너지를 점차 증가되는 과정
 ⑤ E : 기계의 운동 장치에서 에너지가 2차 변환되는 과정

29. ㉠~㉢를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미리 짐작해보면 ② ㉡ : 움직이게 만드는
 ③ ㉢ : 바꾸는 ④ ㉣ : 물을 모아 두는
 ⑤ ㉤ : 살펴 볼

[30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경기종합지수라고 한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러한 공식적 경기지표들과 체감경기는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공식적 경기지표들과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체감경기는 수많은 경제지표 중에서 소비지출, 특히 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 설비투자에 대한 지출, 고용상태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는 가계수입의 변화나 내구 소비재를 구매하는 여유로 경기변화를 체감한다. 기업은 급격히 증감하는 주문이나 이로 인한 투자 계획 변동과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때 경기 변동을 체감한다.

체감경기와 경기지표가 차이가 나고 경기회복 시에 체감경기가 경기지표보다 늦은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체감경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국민생산의 변동을 뒤따라가는 경기 후행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내구재를 비롯한 소비지출을 통해 체감경기를 느낀다. 소비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뒤, 가계소득이 가까운 장래에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야 비로소 경기회복을 인정하면서 내구재를 구입한다. 기업의 고용변화도 본질적으로 경기 후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에도 고용을 줄이는 결정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또한 경기가 어지간히 회복되어도 고용을 좀처럼 늘리지 않기도 한다.

둘째,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실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특수상황에서는 체감경기 회복이 보통 때보다 더 늦어진다. 그러한 국면에서는 경기지표만 보고 설비투자 증가계획을 세우는 기업은 드물다. 또한 ㉠ 실직한 가장이 있는 가계에서 경기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보도만으로 내구재 소비를 늘릴 리는 만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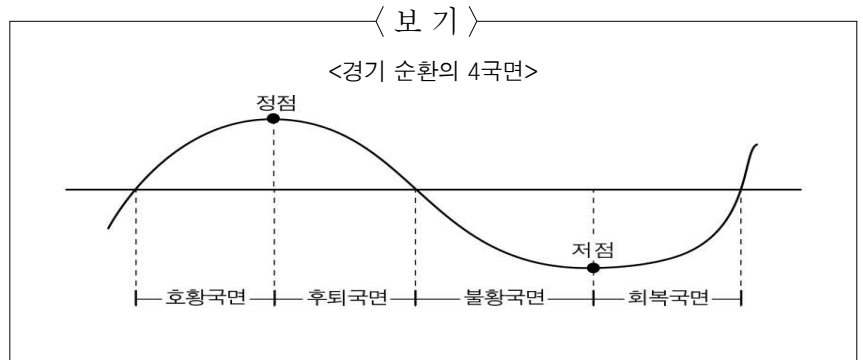
셋째, 통계치와 지표의 해석 차이 때문이다. 보통 지표경기의 회복세를 진단할 때 경기종합지수를 인용하는 경우 실제 상황보다 수개월 경과한 뒤에 이 지표가 집계되기 때문에 단순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지표가 지난달과 이번 달, 지난해와 이번 해를 비교한 증감률로 표현되기 때문에 지표의 수치는 현재 수준보다는 동향의 방향이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올랐다’가 아니라 ‘하강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식의 진단이 자칫 경기회복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 경기 동향이나 지표는 상승하고 있어도 개인이나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3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념의 오류를 반박하며 새로운 논의를 전개한다.
- ② 통시적 고찰을 통해 논의 대상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 ③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비교하여 공통된 특질을 보여준다.
- ④ 현상에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설명한다.
- ⑤ 제기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제시한다.

3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정점을 지나면서 경기지표가 하락하면 기업은 고용을 시급히 줄이는 결정을 할 것이다.
- ② 불황국면이라도 경기지표가 상승하면 소비자의 체감경기도 회복될 것이다.
- ③ 경기가 저점을 지나면 경기지표보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더 빨리 회복될 것이다.
- ④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회복국면에서 경기지표가 상승하면 기업은 설비투자계획을 세울 것이다.
- ⑤ 회복 국면에 경기지표가 상승하여도 소비자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야 내구재를 구입할 것이다.

32.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높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온 기린은 환경에 적응해서 목이 길어진다.
- ② 한번 늘어난 스타킹은 신축성이 약해져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힘들다.
- ③ 옆의 전동차가 움직이면 자신이 타고 있는 정지된 전동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한다.
- ④ 고속도로에서 큰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소형차가 일시적으로 기우뚱거린다.
- ⑤ 아궁이에 불을 지피 방 아랫목이 따뜻해지기 시작해도 방 안의 온기를 느끼려면 시간이 걸린다.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승상 부인이 눈 씻고 제물을 물에 풀 제, 술잔이 굴렀으니 심소저의 혼이 온 듯, 부인이 한없이 서러워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튿날 제물을 많이 들여 물가에 놓고 망녀대(亡女臺)를 지어 매월 삭망으로 3년까지 제사 지낼 제, 수시로 부인께서 망녀대에 올라 앉아 심소저를 생각하더라.

그때에 심봉사는 무남독녀 심청을 잃고 모진 목숨 아니 죽고 근근히 부지할 제, **도화동** 사람들이 심소저 지극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일을 불쌍히 여겨 망녀대 지은 옆에 따로 비석을 세우고 새겼으니,

마음으로 제 아버지 두 눈 먼 것을 위해
몸이 죽어 효를 이루려 용궁에 죽었구나.
연기 긴 물결 깊이 만 리에 푸르렀는데
해마다 푸른 강물에 이 한은 끝이 없네.

강두(江頭)에 세워 놓으니 내왕하는 행인들이 그 비문 글을 보고 눈물 아니 짓는 이 없더라.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그 부모가 낳은 몸과 하늘이 주신 귀중한 목숨도 보전치 못하고, 심청 같은 출천지대효(出天之大孝)가 필경 임당수 물에 가련한 몸을 잠겼도다. 그러나 그 잠긴 곳은 이 세상을 이별하고 간 하늘 상계(上界)니, 하느님의 능력이 한없이 큰 세상이라. 이육에 눈이 어둔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돕지 못하였거니와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

그때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四海龍王)에게 분부하되, 명일 오시 초각에 임당수 바다 중에 출천대효(出天大孝) 심청이가 물에 떨어질 터이니, 그대 등은 기다리고 준비하여 수정궁에 영접하고, 다시 영을 기다려 도로 인간세상으로 내보내되, 만약 시간을 여기다가는 사해수궁 제신들이 죄를 면치 못하리라. 분부가 지엄하시니 사해용왕 황갑하여 엄참군 별주부와 백만 철갑(鐵甲) 여러 장수들과, 무수한 시녀들로 백옥교자(白玉轎子) 등대하고 그 시각을 기다릴 제, 과연 오시 초각이 되자 백옥 같은 한 소저가 해상에 떨어지니, 여러 선녀 웅위하여 심소저를 고이 띄워 교자에 앉히거늘, 심소저 정신 차려 사양하여 이르는 말이,

“나는 진세(塵世) 천인(賤人)이라, 어찌 황송하여 용궁 교자에 타오리까.”

여러 선녀 여쭙오되,

“상제(上帝) 분부 계옵시니 만일 지체 하옵시면 사해 수궁 탈이 오니 지체 말고 타옵소서.”

심청이 사양타 못하여 교자에 앉으니 여러 선녀들이 웅위하여 수정궁으로 들어가더라.

[중간 줄거리] 옥황상제의 분부를 받은 용왕은 심청을 연꽃에 싸서 임당수에 띄운다. 연꽃 속의 심청을 본 천자는 심청을 황후로 삼는다.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가 보고 싶어 맹인 잔치를 연다.

“애고 아버지, 눈을 떠서 나를 보옵소서.”

이 말을 들은 심봉사가 어떻게 반가웠던지 두 눈 번쩍 뜨이니 심봉사 두 손으로 눈을 썩썩 비비며,

① “으으, 이게 웬 말이나. 내 딸 심청이가 살았단 말이나? 내 딸 심청이 살았단 말이 웬 말이나? 내 딸이면 어데 보자.”

하더니, 백운이 자욱하며 청학, 백학, 난봉, 공작이 구름 속에 왕래하며 심봉사 머리 위에 안개가 자욱 터니 심봉사의 두 눈이 활짝 뜨이니, 천지 일월 밝아 왔구나. 심봉사 소리를 지르며,

“에구머니, 애고 무슨 일로 양쪽 환하더니 세상이 허전허전쿠나. 감았던 눈 뜨니 천지 일월 반갑도다.”

딸의 얼굴 쳐다보니 칠보화관(七寶花冠) 황홀하여 뚜렷하고 어여쁠사. 심봉사가 그제사 눈 뜬 줄 알고 사방을 살펴보니 형형색색 반갑도다. 심봉사가 어찌 좋은지 와락 달려들어,

“이게, 누구냐. 갑자 4월 초8일 날 몽중 보던 얼굴일세. 음성은 갈다마는 얼굴은 초면일세. 얼씨구나 지화자 이런 경사 또 있을까. 여보게 세상 사람들이 고진감래를 나를 두고 한 말일세. 얼씨구 좋을씨구 지화자 좋을씨구. 어둠 침침 빈 방안에 불 켜 듯이 반가웁고, 어둠던 눈을 뜨니 **황성 궁중** 웬일이며, 궁 안을 살펴보니 내 딸 심청이가 황후 되기 천천만만 뜻밖이지. 창해만리 먼먼 길에 임당수 죽은 몸은 한세상에 황후 되고, 내 눈이 먼 지 40년에 눈을 뜨니 옛 글에도 없는 말 허허 세상 사람들 이런 말 들어봤소. 얼씨구 좋을씨구, 이런 경사 어데 있나.”

심황후 또 크게 기뻐하셔 부친을 띄시고 3천 궁녀 웅위하여 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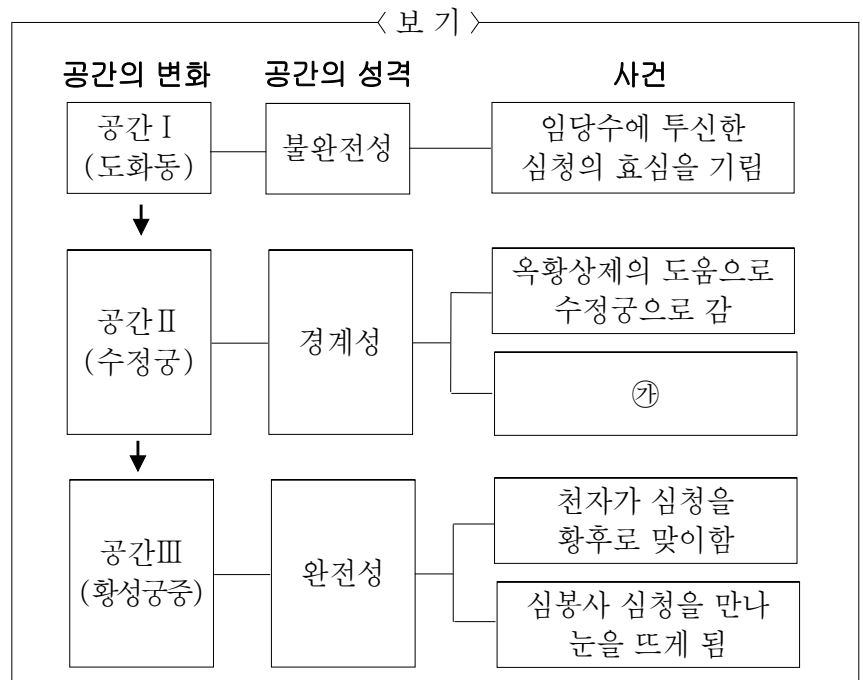
에 들어가니, 황제께서 또한 용안(龍顏)에 크게 기뻐하셔 심학규를 부원군으로 봉하셔 큰 집과 전답 노비를 하사하시더라.

— 작자 미상, 「심청전」 —

3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사해용왕은 옥황상제의 지시를 받고 심청을 구해냈다.
- ② 도화동 사람들은 망녀대를 짓고 심청의 효심을 기렸다.
- ③ 승상부인은 심봉사의 행동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
- ④ 심봉사는 장님이 되기 전에 심청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 ⑤ 심청은 수정궁에서 자신의 신분적 위치를 부정하고 싶어한다.

34. <보기>는 심청의 공간의 변화에 대한 도식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 I의 도화동 사람들은 심청이 공간 II를 염두에 두고 투신한 것으로 생각한다.
- ② ㉠에는 용왕이 심청을 연꽃에 싸서 다시 임당수에 띄우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③ 공간 III을 통해 볼 때 공간 II는 심청의 신분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
- ④ 공간 III으로 심청이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초현실적인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 ⑤ 공간 III과 공간 I의 성격은 대조적이지만 현실계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35.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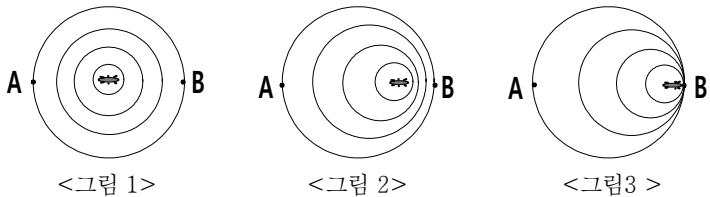
- ① 비유적 표현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정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운율감 있는 문체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기쁨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⑤ 겸양표현으로 인물에 대해 공경을 표현하고 있다.

36. ㉠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1점]

- ① 기고만장(氣高萬丈) ② 반신반의(半信半疑)
③ 선우후락(先憂後樂) ④ 점입가경(漸入佳境)
⑤ 일장춘몽(一場春夢)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요하고 깊이가 일정한 연못 한가운데에 벌레가 이동은 하지 않고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자. 이때 벌레 다리의 움직임이 파동의 진원지인 파원(波源)이 되고 파동의 모습은 <그림 1>처럼 동심원을 ㉠ 이루게 된다. 이것은 벌레가 일정한 진동수로 다리를 움직여 파동의 속력이 모든 방향으로 같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때 같은 시간 동안 A점을 통과하는 파동의 수와 B점을 지나는 파동의 수는 같다. 이는 파동의 진동수와 벌레가 움직일 때 생기는 진동수가 같아 <그림 1>의 A점이나 B점에서 진동수가 똑같이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엔 파동의 속력보다 느리게 일정한 방향으로 물 위를 이동하는 벌레가 있다고 하자. 이때 동심원 간의 거리는 <그림 2>처럼 진행 방향 쪽으로 폭이 좁아져 새로운 모습이 형성된다. 가장 바깥의 원은 벌레가 그 원의 중심에서 움직일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가장 안쪽의 원은 해엄치면서 만들어진 최근의 원이다. 그런데 B방향으로 움직이는 벌레의 속도가 빨라져 벌레의 이동 속도와 파동의 속도와 같아지면 안쪽의 작은 원들은 <그림 3>처럼 진행 방향 쪽으로 겹쳐진다.

벌레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벌레가 발생시킨 진동수는 변함이 없지만 ㉠ A점에 비해 B방향에 있는 관측자는 더 자주 파동을 만나게 되어 높은 진동수를 느끼게 된다. 이것은 벌레의 이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련의 파동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A방향에 있는 관측자는 B에서보다 낮은 진동수를 느끼게 된다. 벌레가 A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나중에 생긴 파동이 A까지 오려면 더 먼 거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파동의 속력보다 벌레의 이동 속도가 느릴 때에는 자신이 발생시킨 파동을 뒤쫓아 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레가 해엄쳐 가는 속도가 자신이 만들어낸 파동의 속도보다 빨라져 가장 안쪽의 작은 동심원이 B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파동의 모습은 파원의 진행 방향의 뒤쪽이 넓어지는 모습을 띠게 된다.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쾌속정이 만들어 내는 물결도 이와 같은 모양이다. 우리는 때로 물가에 서 있다가 다가오는 쾌속정이 만들어 낸 물결에 물벼락을 맞거나, 지상에서 초음속의 비행기가 만들어 낸 날카로운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파원이 파동의 속력을 넘어서게 되면서 발생시킨 충격을 경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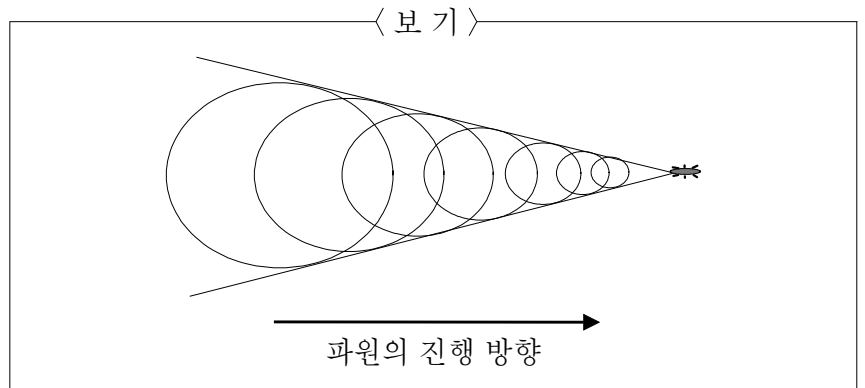
3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파동이 생기기 위해서는 물체가 이동해야 한다.
② 파원의 진행 속도와 동심원의 크기는 반비례한다.
③ 파원의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동심원이 만들어진다.
④ 파원의 속도에 따라 관측자가 느끼는 진동수는 달라진다.
⑤ 파장이 일정하려면 물체의 움직임이 더 빨라져야 한다.

38. ㉠이 나타난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빛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리창은 더 뜨거워진다.
② 회전하면서 던지는 원반이 서서 던지는 원반보다 더 멀리 나간다.
③ 동일한 무게의 물체라도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서 더 가볍게 측정된다.
④ 정지해 있는 자동차보다 진행해 오는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더 높게 들린다.
⑤ 컵에 물을 가득 채워 두드릴 때 나는 소리보다 덜 채웠을 때 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3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한 것은? [3점]



- ① 파원의 진행 방향이 달라졌을 때 보이는 모습이다.
② 파원의 속력과 파동의 크기가 같을 때 일어날 것이다.
③ 파동의 속력보다 파원의 속력이 더 빨라질 때 발생한다.
④ 파원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의 진동수가 동일할 때 보이는 현상이다.
⑤ 파원의 이동 속도가 자신이 만들어낸 파동의 속도와 같을 때 보이는 현상이다.

40. 밑줄 친 단어 중 ㉠과 문맥적 의미가 가까운 것은? [1점]

- ① 작은 빗방울이 모여 내를 이룬다.
② 사물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분석했다.
③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이루었다.
④ 노총각인 막넛동생이 혼사를 이루게 되었다.
⑤ 할아버지의 유언을 못 이룬다면 먼목이 서질 않는다.

[41 ~ 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몇 해 전, 해방이 되던 날만 해도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다. ㉠ 쨍쨍 내리쬐이는 햇빛 아래서 목이 터져라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런데 언제쯤부터인가? 그렇다, 재작년 겨울부터 ㉡ 아버지는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서 다니기 시작했었지. 밤을 낮 삼아 다니기 시작했었지.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간 나타나고,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곤 했었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서 그러고 다녔는지는. ㉢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쭈군쭈군했고, 순경들이 자주 우리집을 들랑거렸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그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누구를 시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 ㉣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산길을 타고 다닌 아버지의 요술을 어쩔 다른 사람은 알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하는 짓은 스스로의 문제라는 듯 나에게서는 물론 어머니나 이모 부에게조차 알리지를 않았으니깐.
- 꽃이 왜 피는지, 꽃은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듯이 세상에는 남이 모를 일이 너무 많으니깐.
- 국민학교 이학년 때던가. 나는 아버지와 산책을 나갔던 적이 있었다. 안개도 자욱한 초여름의 이른 새벽이었다. 이슬에 바짓가랑이를 쫄딱 적신 채 아버지와 나는 들길을 거닐었다.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았고 잠으로부터 트이기 시작하는 나의 귀는 종달새의 사랑스러운 재잘거림을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물기 많은 풀잎에서 폴짝 뛰어오르는 한 마리의 청개구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아버지의 손톱만한 그놈의 빛 고운 연초록 등판은 윤기가 쫄르르 흘렀고, 얇고 흰 뱃가죽은 놀람 탓인지 연신 팔딱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요 꼬마놈은 매일 아침 하루도 쉬지 않고 높이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첫날은 반뿔을 뛰지만, 이튿날은 한 뿔을 뛰거든. 다음날은 한 뿔 반을 뛰고 그 다음날은 두 뿔을 뛰고 그 다음다음날은..... 아버지 그럼 나중엔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아 보려고 뛰지만 결국 하늘에는 닿지 못하지.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깐. 그럼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는 날까지 매일 뛰지. 참 불쌍한 놈이네요? 아냐, 자기가 뛰고 싶어 뛰니깐. 왜 뛸까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 아, 무섭다 땅거미가 깔린다. 곧 어두워질 것이다. 어둠은 무섭다. 밤이 싫다. 벌써부터 내일 새벽이 기다려진다. 선바위산 뒤에서 해가 솟아오르고 날이 환해질 때까지 나는 잠을 설칠 것이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왜 내가 어릴 적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묻기도 전에 ㉤ 아버지는 죽고 없을 것이다. 청개구리 말이다.

(중략)

해방되던 해 가을이 생각난다. 추석날이었다. 어머니는 집에 있고 우리 오누이는 아버지와 함께 성묘를 갔었다. 아버지는 누나를 업었고 분선이와 나는 손을 잡고 걸었다. 폐가 나빠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다는 할아버지의 무덤은 산을 두 개나 넘는 오치굴에 있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무덤도, 할아버지의 어머니·아버지 무덤도 있었다. ㉥ 산길은 단풍빛도 고왔다. 내 키보다 더 자란 갈대들이 눈부신 햇살을 받고 바람에 몸을 흔드는 것도 보기가 좋았다. 밭밀에서 부서지는 낙엽 소리도 듣기가 좋았다. 다람쥐도 보았고, 산딸기도 따 먹었고, 여치도 보았다. 분선이는 들까불며 노래를 불렀다. 걸어도 걸어도 다리 아픈 줄 몰랐다. 아버지는 말했다..... 그래서

말이야, 난 아버지 얼굴도 모르지. 그때 우리집은 참 잘살았던 모양이야. 그러나 네 할아버지가 삼 년을 앓으시다 보니 약을 쓴다고 논을 다 팔고, 돌아가셨을 땐 겨우 나 하나를 키울 정도의 논밖에 없었던가 봐. 그러니깐 네 할머니 머슴 하나와 나를 데리고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지. 내가 일본서 고학을 하며 공부할 때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받았어..... 아버지는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었으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닌 듯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나는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심심하시니깐 그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였고. 성묘를 하고 무덤에 벌초까지 끝내자 아버지와 우리 오누이들은 싸가지고 온 과일과 떡과 달걀을 나누어 먹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굶려 주고 싶어 대뜸 어려운 질문을 꺼냈다. 그 질문은 그 즈음 우리들 또래에서 이상한 수수께끼로 나돌아 선생을 굶릴 때도 싱거운 아이들이 그 질문을 불쑥 던지곤 했던 것이다. 아버지, 이 세상에 맨 처음 달걀이 먼저 나왔게요, 닭이 먼저 나왔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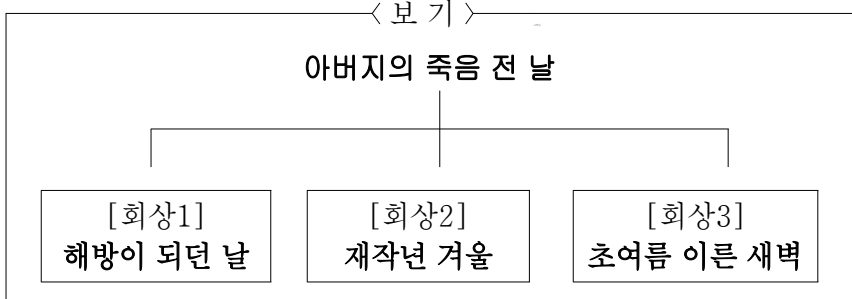
㉦ 나의 당돌한 질문을 받아 아버지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지나갔다. 아버지는 입을 꼭 다문 채 한참을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나를 물끄러미 건너다보며, 내가 알아맞혀 볼까 하셨다. 그래요, 맞혀 보세요.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버지의 꼭 다문 입술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답은 간단하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답은 말이야, 아무도 몰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몰라. 나는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하고 말았다. 피, 그런 답이 어딴게, 나도 그런 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힘주어 말했다. 너도 학교에서 조금은 배웠겠지만 닭과 달걀의 조상을 쫓 따라 올라가면, 몇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암놈 수놈이 한몸이었을 때가 있었지. 그땐 물론 사람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때니깐 말이야. 그럴 때 과연 어떤 게 먼저 세상에 나왔는지 알 사람은 아무도 없지. 어떤 훌륭한 학자라도 추측조차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답은 모른다는 게 옳은 답이야. 나는 풀이 죽어 말했다. 그래도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야 넌 답이란 반드시 맞다, 아니면 틀렸다 두 가지뿐인 줄만 알지? 그래요, 모른다는 건 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녜요. 모른다는 건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냐, 닭과 달걀이 누가 먼저 생겼느냐란 질문에는 ‘모른다’가 답이야. 닭이 먼저 나왔다는 것도 틀리고, 오직 모른다는 것만이 백점이야. 너도 자라나면 차츰 알게 되겠지만, ㉧ 이 세상은 참 수수께끼란다. 모른다는 것이 맞는 답이 참 많거든.

— 김원일, 「어둠의 혼」 —

4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긴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모습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③ 고백적 문체로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현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시대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42. [A]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회상1]의 행위와는 달리 ㉣ 행위는 주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② [회상2]의 내용은 ㉣ 상황의 발생 원인이다.
- ③ [회상2]의 내용은 ㉠을 위해 준비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이다.
- ④ [회상3]의 대화 내용을 통해 ㉣ 행위를 하는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⑤ [회상3]의 아버지의 말에는 ㉣ 상황을 감수하려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

43. 청개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 시점이 변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② 인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물이다.
- ③ 인물의 심리가 전환되는 소재로 사용된다.
- ④ 아버지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암시되어 있다.
- ⑤ 삶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원일은 자신의 소설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강한 표현의 욕구를 촉발시키는 남다른” 유년기 전쟁 체험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현실 인식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어린 소년’ 화자를 통해 이념의 문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루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던 아버지의 삶과 고뇌에 대한 연민, 혈육과의 애뜻한 추억, 그리고 가족 수난의 제공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려낸다.

- ① ㉠ :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가족들이 겪은 남다른 체험과 관련돼.
- ② ㉡ :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현실 인식이 미숙한 소년의 시선으로 표현한 거야.
- ③ ㉢ : 혈육으로서의 아버지와의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내재되어 있어.
- ④ ㉣ : 가족 수난의 제공자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감정에서 비롯된 질문이겠어.
- ⑤ ㉤ : 당시 현실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던 아버지의 고뇌를 보여주는 거야.

[45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는 여러 의미 요소의 복합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영역을 ‘단어장’이라고 한다. 어휘 구조는 상위의 장으로 층위가 올라가면서 점점 큰 영역의 장으로 묶이든가, 한 층위씩 점점 작은 하위의 장으로 쪼개진다. 단어를 의미의 요소들로 쪼개는 것을 ㉠ 성분분석이라고 한다. 실제로 성분분석은 [] 기호를 사용하여 의미자질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총각’의 의미 자질을 분석하면 [-기혼], [+남자],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남자]라는 것은 ‘남자’라는 의미 자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단어장은 [+남자]라는 단어장에 비해 큰 영역이므로 상위어(上位語)이다.

장의 개념은 언어 간의 어휘 구조 비교에도 널리 쓰인다. 번역을 하다 보면 그 단어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한다. 미국에서 살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아빠 눈 열어’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다. 영어에는 ‘(눈을) 뜨다’에 open을 쓴다. 우리는 ‘열다’와 ‘뜨다’로 그 단어장을 쪼개 쓰는데 영어에서는 그것을 묶어 open 하나로 쓰는 것이다. 반대로 ‘푸른 하늘, 푸른 잔디’의 ‘푸른’을 모두 blue로 번역하면 우스워질 것이다. blue와 green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어장을 우리는 하나로 묶어 ‘푸르다’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는 ‘파랗다’나 ‘파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랗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속에서 파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에서 ‘파랗’을 영어로 번역하려면 난감할 것이다.

웨일즈(Wales)어에서는 청색, 녹색, 회색을 합쳐 ‘gla’라고 하며, 어떤 언어는 색을 아예 두 가지나 세 가지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처럼 언어마다 단어장의 크기가 다른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 그 언어의 어휘 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언어마다 단어장의 차이는 그 사회의 특징, 또는 그 민족의 사고 체계의 특징도 반영한다. 이렇게 ㉡ 그 지역 언중(言衆)의 사고 체계에 따라 언어도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

친족명칭도 특히 많은 관심을 끌어 왔는데, 일례로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몇 언어의 단어장을 살펴보면 형제자매를 통틀어 한 단어로 부르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성별만 구분하여 두 단어로 쪼갠 언어가 있고, 그 둘을 다시 순위와 손아래로 쪼개어 네 개의 단어로 부르는 언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순위의 경우 비록 그 대상은 같지만 화자의 성별에 따라 어휘가 달라진다. 반면 손아래의 경우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단어장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에 따라 사고 체계가 얼마나 다양한가도 보여 주지만 언어 간의 어휘 구조의 차이도 잘 보여 준다.

45.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순위	손아래	순위	손아래
한국어	형, 오빠	동생	누나, 언니	동생
영어	brother		sister	

- ① ‘오빠’는 ‘누나’보다 단어장이 넓으므로 상위어다.
- ② 한국어의 형제자매에서는 순위의 경우만 성별을 구분한다.
- ③ 형제자매를 뜻하는 영어의 단어장은 성별만 구분하고 있다.
- ④ ‘동생’을 영어로 번역할 때 단어장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 ⑤ ‘brother’와 ‘형, 오빠’의 차이로 어휘 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46. 위 글과 <보기>를 참조하여 ㉠을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까투리 : [-수컷], [+ 꿩], [+새]
- 할머니 : [-남자], [+늙은이], [+사람]
- 딸 : [-남자], [+자식], [+사람]
- 아들 : [+남자], [+자식], [+사람]

- ① 반의 관계의 단어는 의미자질이 둘 이상 다르다.
- ② 같은 계열의 단어는 상위어가 같은 단계가 있다.
- ③ 의미자질을 지닌 경우는 ‘+’로, 반대는 ‘-’로 표시한다.
- ④ 의미자질이 같은 것이 많을수록 단어의 관련성이 커진다.
- ⑤ [-남자], [-수컷]의 표기로 보아 의미자질의 표시에 성별기준이 정해져 있다.

47.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추’는 ‘술’, ‘줄’, ‘정구지’ 등으로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른다.
- ②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여러 단어로 구별한다.
- ③ 바람이 많은 지역에는 ‘하늬바람, 갈바람, 뉘새바람’ 등 바람의 명칭이 여러 개이다.
- ④ 우리나라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차다, 서늘하다’ 등 온도에 대한 어휘가 세분화된다.
- ⑤ 바닷가 일부 지역에서는 바다 속 바닥이 바위인가 모래인가에 따라 ‘째’, ‘불’ 등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4. 윤의 방 안(저녁)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인서트)*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의 상반신.

윤 하필 무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내㉠* 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요. 어머님 성묘도 하실 겐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꼭 쉬시다 오시든 대 회생제약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S#5. 같은 방 창 밖 풍경(저녁)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S#6. 이모 집 마루(밤)

[회상][과거]

처마 끝에 내다 걸은 희미한 전등에 하루살이와 불나방들이 모인다.

— C · U* —

S#7. 침대차 안(밤)

많은 하루살이가 들어가 죽은 희미한 전등불.

— C · U —

후덥지근한 침대차 안. 유리창에 비치는 윤의 얼굴. 창밖으로 도회의 불빛이 스쳐 지나간다.

이윽고 불빛 드물어지고 어둠.

㉠ 달리는 기차의 굉음소리.

장인㉠ 비행기로 가서 바뀐 타구 가문 빠르긴 허것지만 항공여행이란 위험한 것이니 기차루 가두룩 허게(명령조다)!

윤㉠ 네,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중략)

S#24. 이모 집 건넌방(저녁)

박,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반기는 박과 윤.

박 신문 지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웬일이십니까?

윤 왜? 내가 못 올 텔 왔나?

박 너무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군대에 서 제대할 무렵에 오시고 이번이 처음이시죠?

윤 벌써 한 4년 되는군!

박 결혼하셨다더군요.

윤 응! 자넌!

박 전 아직...... 참 좋은 데로 장가드셨다고들 하더군요.

윤 그래? 자넌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올해 나이가?

박 (어색히 웃으며) 스물 아홉입니다.

윤 금년엔 어떻게 해야겠군! 스물 아홉이라.....

[과거]

중학생인 윤과 박,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
윤의 곁에 어떤 사람 형체가 나타나고 점점 뚜렷해진다.
점점 형체를 갖추어 가는 그 사람은 팔에 문신을 넣고 있다.
()*이라는 문신이 뚜렷해지고 그 다음 얼굴이 뚜렷해진다.
조한수다.

- [A] 박㉠ 이번엔 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가요. 이처럼 급작히 내려오시게…….
- 윤㉡ 아니! 아마 승진이 될 모양인데 며칠 쉬려구…….
- 박㉢ 잘 되셨군요. 해방 후 무진 중학 출신에선 형님이 제일 출세하셨다고들 하고 있어요.
- 윤㉣ (빈정대듯) 내가? 출세라……?
- 박㉤ 예, 형님하고 형님 동기 중에서 조형하고요.

[현재]

윤 참 조한수는 아직도 여기 세무서에 있나?
박 지금은 세무서장님이라니까요.
윤 그래?
박 모르셨어요? 재작년에 고등고시에 패스했죠.
윤 그거 잘 됐군! 그 친구한테나 가볼까?

S#25. 다리 위(밤)

[현재]

윤과 박, 걷고 있다. 냇물에 비친 나무 그림자 곱다.

[과거]

윤이 걷고 있다. 냇물에 비친 나무 그림자 무시무시하다.

[현재]

윤과 박 걷고 있다. 냇물에 비친 나무 그림자 곱다.
- 김승옥 각색, 「안개」-

*인서트: 화면과 화면 사이에 끼워 넣는 삽입 화면.
*㉠: 효과음, 배경 음악이나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음향으로 처리함.
*C·U: 클로즈업, 어떤 한 부분을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찍는 것.
*(): 문신의 모양.

4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박’은 ‘조한수’의 근황을 알고 있다.
② ‘아내’는 ‘윤’의 뜻에 따라 일을 진행한다.
③ ‘윤’은 ‘박’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④ ‘박’은 ‘윤’의 귀향 이유를 미리 알고 있었다.
⑤ ‘윤’은 ‘조한수’의 출세에 대해 시기하고 있다.

49. <보기>는 위 글의 원작 소설의 일부이다. 이 부분을 [A]로 각색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무슨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옛날의 내 무진행의 내용을 다소 알고 있는 박은 그렇게 물었다. “응, 아마 승진이 될 모양인데 며칠 휴가를 얻었지.” “잘 되셨군요. 해방 후의 무진중학 출신 중에서 형님이 제일 출세하셨다고들 하고 있어요.” “내가?” 나는 웃었다. “예, 형님하고 형님 동기 중에서 조형하고요.”
-김승옥, 「무진기행」-

- ① 효과음을 삽입하여 작중 인물의 갈등 상황을 부각한다.
② 내면심리를 보여주는 장면은 독백으로 처리하여 서술 의도를 강화한다.
③ 단정적 표현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④ 대화로 각색된 새로운 사건을 추가하여 인물의 생각을 선명하게 나타낸다.
⑤ 현재의 대화를 과거의 장면에 중첩시켜 대화 내용과 관련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낸다.

50.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간을 전환시키는 교차기법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등장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인물 내부의 심리를 표현할 때, 외부 상황에서 촉발된 인상을 다른 영상이나 음향과 중첩하여 실현한다. 또한 인물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교차될 때 그것을 기동성 있게 포착하여 장면화시킴으로써 의식의 변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장면]

[효과]

- ① S#5와 S#6 — 현재 도시의 ‘가로등’에서 촉발된 인상을 과거 고향의 ‘희미한 전등’과 교차시켜 의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 ② S#6과 S#7 — ‘희미한 전등’과 ‘도회의 불빛’이 교차되면서 도회를 그리워하는 윤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 ③ S#6과 S#7 — S#6의 희미한 전등에 ‘모이는’ 벌레와 S#7의 ‘들어가 죽은’ 벌레의 장면을 교차시켜 윤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 ④ S#7 — 윤이 기차 안에서 생각한 ‘장인’의 말과 ‘기차의 굉음소리’를 중첩시켜 인물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
- ⑤ S#25 — 현재→과거→현재의 장면의 ‘그림자’를 ‘곱다→무시무시하다→곱다’로 전환시켜 인물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